# 풍찬노숙 동안거 90일간의 여정



상월선원
—천막결사 90일간의 기록
백승권 지음 / 조계종출판사 펌냄
1만6천원

## 상월선원 천막결사 90일의 기록
## 안거 대중 아홉 스님 인터뷰 묶어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2월 7일 천막결사 후 무문관 정진동을 나온 정진대중 아홉 스님들이 대중과 삼천대천세계에 감사와 발원의 예를 올리고 있는 모습.

2019년 11월 11일, '2563년 동안거'가 시작된 이날은 한국불교사에 '한국불교 최초의 동안거 천막결사'라는 새로운 역사가 기록됐다. 그 역사적인 90일을 정리한 책이 나왔다.

책은 회주 자승 스님을 비롯한 천막결사의 주인공인 아홉 스님이 90일 동안 있었던 일들과 느꼈던 것들을 들려준다. 유례없는, 앞으로도 보기 힘든 상월선원 천막결사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 시대에 종교의 의미는 무엇인지, 수행자는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사람인지, 아홉 스님의 인터뷰를 담았다.

하루 14시간 이상 정진, 하루 한 끼, 옷 한 벌, 삭발 목욕 금지(양치만 허용), 외부인 접촉 금지, 묵언, 규약을 어길 시 조계종 승적 제외, 유례없는 청규 속에서 안거는 시작됐다. 흙바닥 위의 비닐하우스 천막선원, 방부를 들인 아홉 스님에겐 좌복 하나와 1인용 텐트가 주어졌다. 처음으로 아홉 스님이 함께하는 풍찬노숙의 무문관 동안거였다.

그리고 마침내 동안거가 끝나는 2020년 2월 7일, 상월선원이 자리한 위례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푸르렀다. 유례없는 동안거 해제의 순간을 함께하기 위해 천막이 자리 잡은 작은 언덕 위로 수백 명의 사부대중이 모여들었다. 코로나19를 걱정한 주최 측의 만류가 아니었다면 그 수백 명은 수만 명이 되었을 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그 열기만큼은 수만 명 인파의 그것과 결코 다르지 않았다. 오후 1시 30분, 굳게 잠겼던 상월선원의 자물쇠가 풀리고 아홉 스님이 차례차례 무문관 밖으로 걸어 나오자 대중은 모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해제풍경이었다. 예상은 했었지만 그 모습은 놀라움과 신기함, 그리고 마침내는 경이로운 마음을 품게 했다. 대중은 합장으로 아홉 스님을 맞았다. 아홉 스님의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90일 동안 씻지 않고 일종식을 했던 아홉 스님의 얼굴은 뜻 밖에도 환하고 평온했다. 광대뼈가 드러날 만큼 여위고 덥수룩한 머리카락과 수염으로 뒤덮인 얼굴이었지만 얼굴에서는 감출 수 없는 결기가 보였다. 그 얼굴들은 대중이 궁금해 했던 천막 안의 90일을 모두 말해주는 듯 했다. 아홉 스님의 얼굴은 단지 지난 90일 동안의 역사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다. 앞으로의 90일, 앞으로의 100년, 200년을 그리는 또 하나의 입재였다. 새로운 기운이었다.

**14시간 정진, 하루 한 끼, 목욕금지 등**
**풍찬노숙, 유례없는 청규 무문관 안거**
**주고받은 필담, 이심전심 이야기 소개**
**한국불교 미래 담은 새로운 기운 보여**

"상월선원에 가장 큰 힘이 되어주신 사부대중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사부대중의 정성과 원력에 감사하는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나아가 수행의 종풍이 자랑스러운 우리 종단임에도, 제가 여러 소임을 살면서 수행정진을 소홀히 한 것을 깊이 돌아보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안거마다 제방의 선원에서 정진하는 비구 비구니 스님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공경하고 존중합니다. 해제마다 쌓이는 수행의 결실들이 승가는 물론 사부대중 모두에게 널리 전해지고 한국불교를 선도해 나가기를 서원합니다. 사부대중 모두가 함께 공덕을 회향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자승 스님〉

한국불교를 이끌어가는 근본은 선방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선방이 꼭 깊은 산속에 있어야만 할까. 평생을 선수행으로 정진했던 서암(조계종 제8대 종정) 스님은 "어떤 사람이 논두렁 밑에 조용히 앉아서 그 마음을 스스로 청정히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중이고, 그곳이 바로 절이지"라고 말했다. 상월선원 회주 자승 스님은 백담사 무문관을 다녀온 뒤 '노숙 수행'을 생각했다. 서울역이나 탑골공원 근처에서 노숙자들과 같이 하면서 어려움을 나누려 한 생각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많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일이었다. 고심 끝에 위례 신도시 건설 현장에서 천막결사가 시작된 것이다. 천막결사가 시작되자 세간에는 천막결사를 곱지 않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다. 유례가 없는 일에는 말이 넘칠 수밖에 없다. 과연 그것을 수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 옳은 일일까. 없었던 일이니 그 뜻이나 결말에 많은 의문들이 쏟아졌다. 알을 깨고 나온 병아리처럼 90일의 문 없는 문을 열고 나온 아홉 스님의 얼굴은 많은 의문들을 무색하게 했다. '90일'은 90일을 지나온 아홉 스님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었다.

"석양이 그립다. 붉게 물들어가는 하늘빛이 그립네. 정진이 안 된다. 집중이 안 돼. 왜 이리 힘든가. 춥다. 허기진다. 기운이 없다. 다음은 또 어디로 가야하나."〈인산 스님 수행일지 23〉

책 속에는 '달마대사 스타일 3명' 등 묵언수행 중 스님들이 주고받은 필담과 예기치 못한 일들을 이심전심으로 함께 지나가는 90일의 일기가 담겨있다. 그리고 그 일기는 한 시대를 같이 걷는 모든 대중에게 던지는 공업의 대안과도 같았다.

저자 백승권은 동국대 국문학과를 졸업했다. '미디어오늘' 기자, 노무현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실 행정관을 지냈으며, 2010년 대한불교조계종 화쟁위원회 사무국장을 역임했다. 현재 업무용 문서 매뉴얼 제작 및 글쓰기 컨설팅 전문업체인 (주)커뮤니케이션컨설팅앤클리닉 대표를 맡고 있으며 업무용 글쓰기 강사로 활동 중이다. 1980년대 후반 문예지 〈녹두꽃〉에 두 차례 글을 실었으며 〈싯다르타의 꿈 세상을 바꾸다〉, 〈보고서의 법칙〉, 〈글쓰기가 처음입니다〉, 〈강원국 백승권의 글쓰기 바이블〉 등 십여 권의 책을 펴냈다.

# 연기 · 중도 · 자비… 현대 정치 지향할 가치



붓다의 정치철학 탐구
방영준 지음 / 인북스 펌냄
1만4천원

## 40년 윤리 연구한 인문학자의
## '불교 정치철학' 체계화를 시도
## 현대 정치 이념들 불교적 해석

'사람 셋이 모이면 정치가 시작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치는 인간사에서 항상 존재해왔다. 유구한 시간동안 정치는 '정치철학'이라는 인간과 사회의 정치적 영역에 대하여 연구하는 철학의 한 형태로도 진화해갔다.

40여 년을 윤리학과 사회사상을 연구해 온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는 최근 정치철학이라는 철학 분야와 불교와의 통섭을 모색하며 '불교 정치철학' 체계화를 시도한 연구서 〈붓다의 정치철학 탐구〉를 펴냈다.

저자가 말하는 불교 정치철학은 불법(佛法)의 핵심인 연기법, 중도, 자비에서 출발한다. 또한 이 요소들은 상호 연결돼 작용한다.

붓다의 기본 사상인 '연기법'의 현대적 변용과 창발이 현대 정치철학의 첫 번째 과제로 등장한다. 이와 함께 유무를 떠나고 진위와 선악 등 이항대립을 초극하는 사유 방식인 '중도'의 지혜를 바탕으로 하는 불교 정치철학의 지향가치는 '자비 공동체' 구현에 있다. 이 같은 지향 가치에 오늘날 현대 이념이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모두 포괄돼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붓다의 정치철학 탐구〉을 통해 종교와 정치의 관계부터 현대 정치이념의 불교적 해석까지 '불교 정치철학'을 정립하고 있다.

저자는 △현실에 대한 상황규정 △지향가치와 이상사회 △실천 방법과 전략 등 세 가지 차원으로 접근해 불교 정치철학의 체계화를 시도한다. 특히, 붓다 다르마의 최고 가치인 '열반'은 지혜와 자비에서 나옴을 상기시키며, 이를 정치철학적 용어로 치환해 △대자유인 지향 △행복한 삶의 실천 △자비 공동체 구현 △연기의 중정(中正) 원력에 감사하는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나아가 수행의 종풍이 자랑스러운 우리 종단임에도, 제가 여러 소임을 살면서 수행정진을 소홀히 한 것을 깊이 돌아보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안거마다 제방의 선원에서 정진하는 비구 비구니 스님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공경하고 존중합니다. 해제마다 쌓이는 수행의 결실들이 승가는 물론 사부대중 모두에게 널리 전해지고 한국불교를 선도해 나가기를 서원합니다. 사부대중 모두가 함께 공덕을 회향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자승 스님〉

한국불교를 이끌어가는 근본은 선방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선방이 꼭 깊은 산속에 있어야만 할까. 평생을 선수행으로 정진했던 서암(조계종 제8대 종정) 스님은 "어떤 사람이 논두렁 밑에 조용히 앉아서 그 마음을 스스로 청정히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중이고, 그곳이 바로 절이지"라고 말했다. 상월선원 회주 자승 스님은 백담사 무문관을 다녀온 뒤 '노숙 수행'을 생각했다. 서울역이나 탑골공원 근처에서 노숙자들과 같이 하면서 어려움을 나누려 한 생각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많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일이었다. 고심 끝에 위례 신도시 건설 현장에서 천막결사가 시작된 것이다. 천막결사가 시작되자 세간에는 천막결사를 곱지 않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다. 유례가 없는 일에는 말이 넘칠 수밖에 없다. 과연 그것을 수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 옳은 일일까. 없었던 일이니 그 뜻이나 결말에 많은 의문들이 쏟아졌다. 알을 깨고 나온 병아리처럼 90일의 문 없는 문을 열고 나온 아홉 스님의 얼굴은 많은 의문들을 무색하게 했다. '90일'은 90일을 지나온 아홉 스님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었다.

제4장 '현대 정치이념의 불교적 성찰'은 평생을 윤리철학 연구에 매진한 저자의 내공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저자는 자유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족주의, 파시즘, 공동체주의, 페미니즘, 녹색주의, 아나키즘 등 현대 정치이념을 붓다의 가르침으로 진단하고 새로운 좌표를 제시한다. 그러면서 "연기와 중도의 지혜로 이념을 대하면 결코 이념의 오류와 함정에서 빠지지 않고 인간의 삶을 위한 바람직한 방편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다.

한국불교의 정치철학적 과제로는 △민주적 정의 공동체 지향 △이념적 화쟁과 통일 미래상의 좌표 제시 △불평등 문제와 자비 공동체 구현을 꼽는다. '민주적 정의 공동체 지향'에 대해 저자는 붓다의 연기법을 정의론으로 연결시킨 아마르티아 센의 정의론을 민주적 정의 공동체를 구현하는 데 많은 비중을 두고 소개한다. '이념적 화쟁과 통일 미래상의 좌표'는 한민족의 평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 중도의 지혜로 이념적 갈등을 극복하고 나아가 통일 미래상의 좌표를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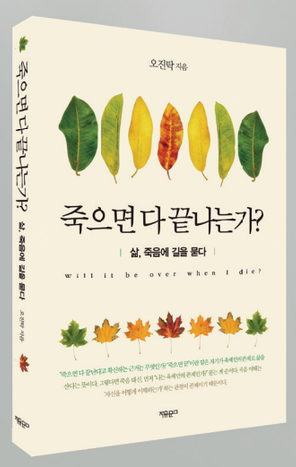
'불평등 문제와 자비 공동체 구현'은 불교 정의론의 핵심이다. 자유는 평등의 가능한 적용 분야에 속하고, 평등은 자유의 가능한 분배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붓다의 연기법, 중도, 자비를 어떻게 현대 정치에서 구현할 것인가'라는 화두를 저자 방영준 교수는 〈붓다의 정치철학 탐구〉를 통해 던지고 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삶의 질을 바꾼다!

죽으면 다 끝나는가?



생사학 전문가 오진탁 교수가
풀어놓는 죽음의 실재!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죽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육체적 죽음이 죽음의 실체인가?
불교에서는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오진탁 지음/신국판/352쪽/값 17,000원

한국 사상사의 대표적인 철학논쟁!

불교와 유교의 철학 논쟁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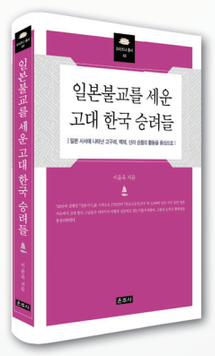


유불 논쟁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전개과정을 거쳤는가? 그 핵심 주제는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이 책은 유불 논쟁이 지니는 사상적, 정치적, 사회적 의미 등을 입체적으로 조망하였다.

도웅 지음/신국판 양장/480쪽/값 25,000원

일본불교는 한국 스님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일본불교를 세운 고대 한국 승려들



발로 뛰어 완성한, 일본 속 한국 고승전! 일본불교의 초석을 다지는 데 기여한 고구려, 백제, 신라 스님들의 일본에서의 삶과 활약상, 의미 등을 최초로 밝히고, 그 발자취를 찾아 기록하였다.

이윤옥 지음/ 신국판 양장/372쪽/값 22,000원

도서출판 자유문고 |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 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